東亞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十二面

日本人殺害英兵에 不起訴의 判決言渡

日本人傍聽席憤慨, 記者는 退場

三日開廷된 英領事裁判

【奉天三日發同盟】英國領事裁判은 三日 午前十時 三十分 英國總領事館에서 開廷裁判長모리스氏는 五月二十六日의 佐佐木氏 殺害事件은 證據가 充分하므로 不起訴한다고 宣言하고 單只朝鮮酒店에서생긴 暴行事件만 起訴한다고 宣言하엿으므로 日本人傍聽人은 非常히 憤慨하고 日本人記者는 一齊히 職席退席하엿다

日本大使館憤慨

外交手段에 附하리고 對策考究

居留民大會開催說

不可能하므로 今後의 折衝은 相當한 波瀾이 豫想되어잇다

豐臺事件에 對한 日本의 要求容認

責任者의 免職, 將來保障等

中國側의 回答內容

對中問題로 步調一致

三相이 再確認

獨中密約으로 獨政府에 反省促求

駐獨武者小路大使

綜合國防充實費 三十億圓의 巨額

明年度陸軍豫算은 十一億圓

參謀本部計劃案成立

陸軍豫算

約十一億一千六百萬圓의 巨額에 達하게 된다

繼續年度

八億圓臺

朝鮮總督府의 國策豫算案

不遠拓務省에 送付

總會議長과 佛外相會見

에國併合承認의 素地만들 決議案上程으로 協議

川越新大使 外交部長訪問

二日南京에 到着

五相重要協議

五相會議다음三相會議開催

說明內容은 一切秘密

今後의 閣議엔 三長官만 出席

母賴木遞相의 三大國策

伊國의 議事妨害로 小國代表大憤慨

外交關係를 斷絕한다고야만

聯盟政局아주 混亂狀態

五十萬의 從業員 總罷業할 形勢

米國鋼鐵工業의 危機

알라스카空軍根據地設定委員을 任命

兩制度調査委員 政黨推薦者決定

英米의 建艦競爭

英國의 主力艦二隻建造로

國防費等으로

外地의 鑛務 關係者協議會

拓相官邸에서

立敎大學生 總退學決議

盟休益益紛糾

夕刊後市況

東亞 一短評

本紙號外發行

三百頁의 大冊을 거저드립니다

어느분에게도

여러분!

자기는꼭무병하다고믿는분 이 몇이나게십니가?!

지금 곳 읽어주십시요

피를토하시자

기가허해졋다

가장무서운것

東京市神田區神保町 アルス로

晴明한 自然! 여름의 書美者들……

急激한大資本의進出

四年間、新設된大工場 全朝鮮에 七十六處

勞働者百名以上、資本五十萬圓

三分一이咸北에散在

최근내자본의 진출은 [illegible] 로 말미암아 조선안에 설치되는가 중대공장은 [illegible] 최근 四년안으로 완성된것이 七十六개공장이다.

이것을 각도별로 보면 경기(京畿)에 十六공장, 충남(忠南)에 二, 전북(全北)二、전남(全南)四、경북(慶北)三、경남(慶南)十四、황해(黃海)에 三、평남(平南)三、강원(江原)三、함남(咸南)三、함북(咸北)二十四, 등으로 함경북도가 단연수위이오 그다음은 경기 경남 [illegible] 순위이다.

그리고 직공사용상황으로 보면 [illegible] 사용하는 공장이 二[illegible] 공장이오 二百명이하를 사용하는것이 二十六공장, 五百명이상을 수용하는것이 九개공장이다.

總資本二億! 使用職工二萬一千

紡織、製絲、工場等

[illegible] 공장중 공장단위로 자본금五十萬원이상의것과 직공百인이상, 원동기마력수百마력이상, 기관사용기업(汽罐使用)을 사용하는 공장을 [illegible] 조사한바에 의하면 [illegible]

國定敎科書 定價를減下

[동경전화통신] 문부성에서는 국정교과서의 내용개선에 [illegible] 정가를 인하하기로되엇는데 [illegible]

京都留學生激增

中等以上校生六百七十五名 昨年보담一百五十名增

[경도] 금년경도시내의 각학교에 [illegible] 이 증가되엇다 한다. [illegible]

實業四八

全北=大學四高專一中學一六實業 四

全南=大學[illegible]高專二五中學六六 實業二九

江原=大學五高專三中學二二實業 一二

黃海=高專三中學三實業一

平南=大學七高專一七中學一九 實業二

平北=大學三高專九中學一六實業 二

咸南=大學三高專五中學一〇實業 一

咸北=大學三高專一中學六實業一 其他一七

京畿道=大學一〇高專七中學一七 實業二

忠南=大學一高專九中學一四實業 八

忠北=大學一高專五中學五實業一

慶南=大學一高專二〇中學六四 實業六二

慶北=大學一一高專二〇中學三七

開城初等學校生 蛔虫保留九五%

學校에서는驅除에努力

[개성] 어린이의 보건을 여지 [illegible] 아동의 신체의 발육을 보지못하는 [illegible] 성적이 나타나서 [illegible] 제一회에 와서는 [illegible] 결과 다음과 같다고 한다.

第一回 服用人員七四六名▲下蟲總數六〇六九▲一人平均八·五▲一人最高下蟲[illegible]

第二回 服用人員八[illegible]▲下蟲總數[illegible]▲一人平均[illegible]

第三回 服用人員七[illegible]▲下蟲總數[illegible]▲一人最高下蟲數三三

何等施設없이放任된 十六萬戶火田民

二百四十餘森林主事만增員

嚴重取締主義를採用

[illegible]

典當利子減下에 組合에서反對

東京質屋組合과提携

[illegible]

出奔逃走한妻 찾아毆打致死

[봉화] 경북봉화군 법전면 [illegible]

八十餘戶住民家屋에 治安隊出動放火

昨年災餘의輯安同胞또災難

阿片栽培햇다는理由로

[조산] 집안현(輯安縣)일대에 거주하는 이주동포는 작년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소작료도 못되어 기아에 직면하고있엇는데 작년十월 두병도법의 영향으로 一千여명의 이재민을 보게되어 외차구(外岔溝)조선인민회의 적극적 활동과 조선의 동포들의 뜨거운 동정으로 그생명을 보존하엿고 금년순경기에 이르러서는 외차구민회(外岔溝民會)로부터 야간의 농자를 언어 영농케 되엇다.

이같이 근근히 다시 생의 희망을 잡고 해배든터인데 지난六월二十七、八양일에 돌연 치안대 선서도판(治安隊指導官)의 인솔인 八十여명이 [illegible] 나자구[illegible] 일대에 거주하는 이주동포가옥에 [illegible] 한다.

再次大擧陳情

民會에서도束手無策으로傍觀

災民은路上에서哀哭

[illegible]

中央線七個所測量

今年中土盤工事着手

私鐵補助金은可能範圍에서

九月頃에는設計完了

[illegible]

德壽宮美術館 日本畵陳列替

금번 이왕직에서는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소장의 일본회화를 빌어다가 덕수궁(德壽宮)석조전에 새로 진열키로 되엇다.

그는 경도(京都)전대 대가들의 려작품으로 덕수궁미술전람회의 개시이래에 처음보는 명화들이라 한다.

一、伊藤小坡筆 伊賀の局 作者藏

一、小早川秋聲筆 [illegible]

一、上村松園筆 [illegible]

一、宇田荻邨筆 [illegible]

一、川北霞峯筆 大島の春

一、水田竹圃筆 [illegible]

一、榊原紫峰筆 [illegible]

一、永田春水筆 [illegible]

一、勝田哲筆 [illegible]

一、故杉谷雪樵筆 山水 帝室博物館藏

一、小村大雲筆 [illegible] 京都市[illegible]藏

一、水上泰生筆 [illegible] 作者藏

一、小早川秋聲筆 凱陣 同

相澤中佐遺骨 안기워歸宅

어린아들에게

[동경전화통신] 사형을 집행한 상택삼랑(相澤三郎)중좌의 유해는 [illegible]

今日

第六回中等學校野球大會(日一第)

戰順 午後一時 徽文高普―中央高普戰 午後四時 大東商業―普成商業戰 (場所 [illegible])

主催 延禧專門學校 後援 東亞日報社

博川少年團에서 謄寫機盜用타發覺

普校生으로讀書會와도連絡使用

警察은背後를嚴探中

[박천] 보통학교생도들이 [illegible]

玄熙文氏力作 彫刻展覽會

[illegible]

去勢牛六百頭中 病死近百頭

[함흥] 함남도당국에서는 [illegible]

死刑의嚴舞奉 不服코上告

公判은九月廿一日

[illegible]

宣川保育女校 巡廻音樂隊

[선천] 선천읍(宣川邑)보성여학교(保聖女學校)에서는 [illegible]

本報五千號記念贈物

本社特選 朝鮮道別現勢地圖

第八回 江原道七月中旬(印刷遲延으로期日變更)一齊配付

이地圖는 道別地圖로서는 朝鮮初有의 最大 最精할것으로써 府、郡、面、洞의 行政區域과 山系 河海의 全般地勢는 勿論이요 鐵道、道路와 產業分布特히 現下萬人이 矚目하는 金銀銅 其他 重輕金屬의 分布狀態가 一目瞭然하며 더욱히 市街及里程地圖가 잇고 人口、財政、敎育等數十種의 極히 要領잇는 統計圖表가잇어서 現勢地圖로서 가질수잇는 內容에 萬一의 遺漏가없읍니다. 道를 따라서 或은 新聞一頁大、二頁大로 縮尺은 五十萬分之一이며 一年四次定期로 發行하야 그때의 月定讀者에게 配付하기로하는것입니다. 朝鮮의 現勢를 알어야할 二千萬 우리는 반듯이 이地圖를 처음부터 끝까지 十三枚를다 모아야 합니다.

附圖와圖表

■道內歲入及歲出 ■道內學校費豫算 ■道內生產額 ■道內耕地及林野 ■職業別戶口

■道內著名市街地人口 ■郡別面積及人口 ■道內敎育狀況 ■道內文盲統計 ■道內主要名勝

■道內工產額 ■道內里程表 ■金剛山交通給圖 ■春川市街圖 ■鐵原市街圖

年四次三個月마다定期發行

★그날그날★

(陽七月四日土曜日)

(陰五月十六日丁亥)

日出前五、一六 日入後七、五九

月出前七、三八 月入後四、二九

	滿潮	干潮
仁川	前五、〇五 後五、〇五	
鎭南浦	前九、一〇 後九、三〇	
釜山	前八、二〇 後八、四〇	

오늘의天氣

ClibPDF - www.fastio.com

社說

班常委制의弊

[illegible]

二

[illegible]

三

[illegible]

無能을暴露한聯盟

機構改革에腐心

戰爭絶滅의自書自讚도終焉!

孤城落日의白亞殿堂

[illegible]

憲法에共產黨登場

抗議沙汰演出?

蘇、新憲法과列國關係

[illegible]

外蒙赤軍의兵力

滿洲國을脅威하는黑點

[illegible]

植物二重檢査

撤廢를陳情

[illegible]

母姓의擁護!

家族制度를强化

兒童扶養의施設擴大

[illegible]

第二十六 典故甲 【卅五】

鄭寅普

四、釋道典（一）

[illegible]

짜바、차이나社의 釜山寄港廢止說

[illegible]

印度國民議會

獨逸伯林日報에서

[illegible]

中繼放送

[illegible]

딴치히市兩首腦 제네바로急行

나치스情勢覺書提出

[illegible]

危機에瀕한 瑞西의金本位

嚴重한外國爲替制限實施

◇激減된金保有高

[illegible]

漫畫世界

印度赤化恐怖로 뽕무니가 가렵지마는 그래도「外天」과英蘇親善

高周波重工業 城津工場着工

[illegible]

增資한朝鐵會社 間島로進出決定

[illegible]

作成

[illegible]

犧牲

[illegible]

印度

[illegible]

鬪爭

[illegible]

新刊紹介

▲月刊野談 七月號

▲新聞解剖 五號

▲元山時論 六月號

▲新日本民論 七月號

好寶業

東洋劇場

東劇座公演第五週 光明을이룬사람들 不具의아내 貧富의境遇

돈벌기大王 リード式 兒島製作所

언제 보거나 グリコ 가젓네

門專科喉咽鼻耳

ヤマト發動機 使用簡單耐久無比

오페라햇 뮤직모-라운드

圓成社

第一劇場

霖雨로堤防危險
三個面民總動警戒
請負業者工事의遷延이原因
昨年大水害의進永平野

【진영】 기왕은 더위엿으나 하천공사(河川工事) [illegible] 장마에 낙동강(洛東江) [illegible] 수량이 [illegible] 청부업자 [illegible] 금번장마를 五、六일로 폭우가 연속하야 [illegible] 되어 대산、동면、진영 각면에 [illegible] 위태하게되엿다. [illegible] 간공장 경찰관서등에서 [illegible] 농민가에 [illegible] 생명선을 생각하고 노인(老人)은 [illegible] 나와담는 호미등은 [illegible] 지난三十六일부터 수난방비(水難防備)에 노력중이나 그래입이 어디잇슬지인가 내용을 알어보면 대산면하청공사에 [illegible] 청부업자들은 그년동안 [illegible] 농명이잇어 농민 기에도 불구하고 아직五사나 나가면 저녁七시까지나 [illegible] 五、六十전을 주게되나 인부를 언어볼수 없게되어 기한은 되고 따라서 수난이 박두하나 조금도 염려성이 없는 그들을 믿을수없이 그와같이 우리공사중이라 하며 대산수리조합(大山水利組合) 제八호제방은 방금 위험상이 바다고한다.

鄕土力壇
公職者任에對하야
一寄稿

[illegible]

豪雨暴注로因해
進永學院이倒壞
二百아동은 부득이 임시휴학

【진영】 경남 진영의전 進永學院은 수아아동 二百여명을 교수하여오든바 지난二十八일 오후에 때마침 폭우가내리어 뜻하지 아니한 도괴를 당하엿스나 그때마침 농번기라 아동들 二、三일간 휴학을 시켯는데 현장감인서 [illegible] 씨외 하부형 회장 [illegible] 씨는 속히 학원을 건축하야 생도를 수용하도록 동시 [illegible] 공사에 착수하엿다한다.

[illegible] 잇을뿐아니라 천수답보를 싱우라고 비를마조면서 보리를건우어눈 섯도 건조를못하야 썩어서서일반 농가의 막대한 손해를줄뿐아니라 현재에는 식량이끈어저서 돈을가 진사람도 식량을구할라하여도 구할수없는처지라 아직도 남은보리 여서 앞으로수삼일만 장마비가계속된다면 함안지방의 식량에중대 문제라한다.

維持會를即時改築着工

갓다고 한다.
洪蘭城 李興烈 (以上教員)
金洋龍、高順寧、李福順、李令順、劉順喜、朴玉蓮、金順女、金貞玉、鮮于惠蘭、尹榮實、吳原福 鄭玉善 (以上生徒)

群山 自轉車大會의 受賞光景

連日霖雨繼續으로
鰯油粕損害莫大
거름과 약박이 모두썩어서
蔚山各鰯油工場憂慮

【울산】 울산지방에도 [illegible] 비는 [illegible] 내려 [illegible] 되엿다 [illegible] 울산(蔚山) 각연안에 산재한 三十여개소 약유박(鰯油粕)공장에도 [illegible] 약유공장은 [illegible] 하다는바 근一주일동안을 [illegible] 내었을뿐더러 오래동안 [illegible] 기름만나 [illegible] 를 다량으로보태든바 [illegible] 울산군가어항구내 약유박공장에서는 五천여원의 손해를 [illegible] 계되어 일반세어민등은 [illegible] 의 울븐 깨어저 버리고 [illegible] 로 내리는비를 원망하고 잇다한다.

蔚山의虹谷瀑布

咸安에도長霖
보리가全部썩어

【함안】 [illegible] 부터 한 발이계속되어 일반농가에 [illegible] 을 느끼게하는차에 지난六일 [illegible] 일부터 무처럼 나리는이우는 장마가되어 지난七월一일 아슥까지 十여일을 계속하엿다. 그러나 [illegible] 수확기가되자 이와갇은 지리한 장마로서 전야

京城保育音樂隊
開城에서演奏

【개성】 경성 보육학교 음악회 [illegible] 아내는 오는 十四일 본보 개성지국주최로 [illegible] 회관(中央會館)에서 첫연주를 개시하기로되엇는데 일반은 다수이 래청하여주기를바란다는 바이다.

구경길이저승길 (개성)
지난一일 오후六시경에 개풍군 영남면용흥리(開豐郡嶺南面龍興里)에잇는 개성부의상수도 수원지에 구경을왓든二十五、六세의 조선남자 一명이 잘못하여 三十여척이나 되는 석축에서 떨어저서 혼수상태에 빠진것을 부근농민이발견하고 인가로러다 구호중이엇는데 이일 오전十一시경에드디어 사망하엿으므로 개성서(開城署)에서는 검시를한후 그매장을하엿는데 아즉도 그 죽은사람의 신원은 조금도 알수가없다고한다.

全北道內移秧은
卅日現在七割程度
任實、南原、淳昌이不良할뿐
昨年보다는水量豊富

【전주】 지난二十九일까지 거두어 四割정도이든 전북도내의 이앙(移秧)은 그뒤 계속적 강우의 혜택으로 지난三十일까지에는 약七할의 호성적을 보게되엇다는 바 남원 임실(任實)、순창 등은 비교적 부진하나 [illegible]

南原普校生도
九十%가保有
우려할 어린이의 회충피해
最高排出者는卅二匹

【남원】 채식(菜食)을 중심으로하는 우리식생활의 관계로 [illegible] 회충을 보유하고 잇는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illegible] 남원공보교에서는 [illegible] 一千二百十一명에게 검사 [illegible] 이五필강 [illegible] 평균一인 보유

南海地方엔
移秧이約八割

【남해】 경남 남해 [illegible] 은 지난달 二十五일에 [illegible] 리의 비가 온 이후 [illegible] 마가 계속되는데 군내의 이앙은 약八할가량 [illegible]

浦項海水浴場
一日부터開催

【포항】 경북 동해안 [illegible] 포항해수욕장 [illegible] 지난一일부터 개장하엿는데 포항읍에서는 [illegible] 각관공서 유지와 신문기자를 초청하야 성대한 개장식을 거행하엿다 한다.

移秧期에도
小作權移動
소작인은 군에 조정신청
南海郡南邊洞의일

【남해】 경남 남해군(南海郡) 소작위원회에서 금춘에 법외조정(法外調停)이 四十여건에 달하엿다는것은 본보에 보도한바잇거니와 이앙기(移秧期)인 요사이에도 신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로 모를 심으겟다는등 소작쟁의가 이러낫는데 지난二十九일 소작인측에서조정신입을 [illegible] 엿는바 그내용을 [illegible] 남해면 [illegible] 마산(馬山)사는 전승진(全升鎭)씨의 토지 [illegible] 을 소작하여오든바 계약기간이 [illegible] 五두락을 전답 려수(麗水)서 [illegible] 것이라 한다.

坡州殺人犯
開城檢局으로送致

【문산】 [illegible] 사람을 놀나게한 김량복(金良福)은 저간 파주서사법계(坡州署司法係)에서 엄중한 취조를 받고잇든중 이에취조도 一단락을고하고 살인(殺人)、강간(强姦)、살인미수(殺人未遂)、방화(放火) 죄명으로 지난一일 개성검사국(開城檢事局)으로 송국되엇다.

全北各處에
簡易校設置

【전주】 전북도에서는 지난소화九년도 이래 [illegible] 간이학교(簡易學校)를 설치해 오든중인데 도회지에 잇어서도 입학난이 혹심하야 보통학교에 수용못된 아동들은 결국 하명을 초과하게되면 [illegible] 학교 [illegible]
1、相生簡易學校2、完山簡易學校 金堤邑金堤簡易學校 南原邑龍城簡易學校 井州邑上里簡易學校 裡里邑裡里簡易學校

務安各普校
缺食兒百卅
五月末現在의數字

【목포】 전남 무안군내(務安郡)는 작년에 [illegible] 로인하야 각보교 [illegible] 점점 줄어가는터인데 [illegible] 조사에의하면 [illegible] 六명에달하고 [illegible]

千二百五十五件
全南道內의小作爭議
半年間小作調定願

【광주】 소작쟁의가 한키로조선제一이라는 아름답지못한 칭호를받고잇는 전라남도내에서도 이앙(移秧)이 한창인 요지음에도 소작조정원이 [illegible] 지난二일 오전까지에 二백四十九건 [illegible]

靈岩에도長霖

【영암】 二개월 이상의 한발로 인하야 군민의 마음이 초조하든 전남영암(靈岩)지방에 지난달 二十一일부터 비가 나리기시작하야 [illegible]

慶北線列車에
靑年一名自殺

【김천】 지난一일 오전다섯시 三十五분 경북 김천(金泉)역을 출발한 경북선 열차가 김천군 어모면 외남동 [illegible] 통과할때에 어떤 청년一명이 투신자살 하엿는데 이

道警察部에投書가
事件發覺의原因
◇料亭女給도 證人으로 登場
鎭海署瀆職事件續報

【마산】 진해서 사법주임(鎭海署司法主任) 으로잇든 하동출생 [illegible] 이 탈로되어 마산 형무소(馬山刑務所)에 강제수용되엇다함은 작일 보도와갓거니와 사실내용에 대하여 마산검사국에서는 절대비밀에 부치고잇음으로 자세히알수 없으나 탐문한바의 의하면 창원군상남면사파정(昌原郡上南面沙巴亭) 박한조(朴漢兆)가 진해경찰서장에 부정사실이잇다고 도경찰부에 투서한것이 발단되어 사실은 그와정반대로 진해서장이 부정사실이잇는것이 아니라 박한조와 평시불평에 친밀하게지내든사법주임정두연의 독직사실이 탈로된것이라한다.

그래서 정두원은 마산형무소에 수용되고 진해서에서는 박한조와 진해읍에잇는 명월관(明月館) 웅남면 창곡 [illegible] 마산에 리진우(李鎭宇)와 정두원의 친부 정모등을 검거하여 두고 연일 취조를 진행하든중 지난二일 박한조는 마산도착오전十一시기선으로 마산검사국으로 압래하고 일방 부외봉선각(鳳仙閣) 여급인 기요코(キヨ子)(一九)를 증인으로소환심문하엿는데 사건내용은 묵직보충되엿다하며 [illegible] 주까지 미체포자가 몃명이나인는 뜻하여 사건은 어느정도까지확대될지알수없으며 마산안모(安某) 은 사건의아무관계가없는것이판명되어 一일에석방되엇다.

해산식을 열어오랫동안의 피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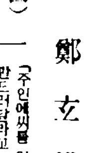
東津江上流
改修工事完了
流域住民의不安解消

【김제】 홍수가잇을때마다 유역수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동진강(東津江)상류의 개수공사는 국비(國費)三할、도비(道費)二할、동진수조부담五할、총공비 二十五만원으로 작년六월부터 동진수조에서 기공하야 지난六월에 준공하야 유역수민의 숙년의 불안은 해소케되엇다는바 공사개요는 아래와같다 한다.
一、施工區域 [illegible] 滿山里[illegible] 延長一萬三千米突
二、工事種別 河川改修工四、二五九米、局部護岸工三五個所、樋渠工三個所、用水川工四個所

中滿視察團
圓滿히終了

【이리】 본보이리(裡里)지국에서는 여러가지 기념사업의 一단으로 북중국(北支)、과만주(滿洲)각지의산업시찰단을조직하야가지고 지난六월十四일 오후八시四十六분 이리역발열차로 一행十七명의 단이 장도에올라 출발하엿든바 그간예정의 코스를 순회하야 천진(天津)북평(北平)을위시하야 만주각도시와 농촌이며 북선의 一대를 고비고비 순방하고 지난三十일조에 경성에 도착하야 요소를여방한후 몽야에 이미깃븐

密林 (192)
金末峯 作
鄭玄雄 畫



소곰도짜다 (四)

인애는오꾸미의 천하는대로방으로 들어가다.
방에는 [illegible] 무엇 한구석에 노여잇는것이 눈에 띄엿으나 인애는 잠자코 한손으로 머리에 띠을 고처꼬즈며 속으로
「대처 어녀자가 무얼 하는사람일가?」
하고 고개를 기우렷다.
「그럼 내점간만 부엌으로 가봐야 되겟는데요」
하며 방안으로 고개를 드리밀고 섯든 오꾸마가 도로 내려선다.
「저도 좀보아 드릴가요?」
「괜찬아요、나도 이저녁이 마조막 써 [illegible] 니깐요」
인애는 방안편에 노인상자를 힐것 바라보고
「어디로떠나가는두나」
하고 질식을 하엿다.
이윽고 저녁밥상이 들어오고 옆에방에잇든 동섭이와 일남이도 건너왓다.
오꾸마가 솜씨를 다하여 만든음식이라、양요리인지 청요리인지분간하기어려운 반찬이 몃그릇 눈에 띄웟다.
오꾸마는 맘물은솜을 수건으로 씻스며
「주인에씨를 위하야 음식을 잘만드러달라고 아침부터 유선생님이 청을하시는구려、글세 내가 무슨 솜씨가잇나요 거저 예써만든다는것이 이모양이조 자 반찬이라도 잡수서요」
「자、인애씨 수저를 드시지요 두귀밑이 진담레처럼 붉어젓다.
아니게 아니라 이양반좀씨는국 제저어니하요 하하하」
우스며 동섭이 먼저 숫갈로 김치

국물을 떳다.
「홍、또놀라신다니까」
하고 오꾸마는 한층놀란 눈을 크게뜨더니 인애를 향하여
「난 오늘저녁 서울로 갑니다 장사를 좀해보려구요 돈을버러야 살지안캣서요? 그래서 본정통에다 찻집을냇지요 찻집이라기보다도 술집이란지도 모러조만!」
어디인지 서투런 악센트가 섞기여잇는 조선말이지마는 오꾸마의 하는말이 결코 못할만이 아닌것을 인애는 짐작하엿다.
「네 그러세요?」
하고 인애는 수저를 멈추고 오꾸마의 말이 떨어질때마다 고개를 끄덕엿다.
「그런데 주인에씨도 서울오시거든、유선생님을 뫼시고 각금 놀러 오시죠、차갑은 때라하지안을테니……」
「네 그럿습니까?」
인애는、방그레 우스며 도라한 고개를 끄덕엿으나、지금까지 마조보고 잇든、오꾸마의 입이 갑작이 조롱하듯이 약간찌긋하고、한편으로 몰아가는것을、노치지 안코 바라본 인애의 가슴은 가시로 찔린것처럼 뜨금하여젓다.
「자、그럼、저는 서울갑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호호」
웃고 먼저 숫가락을 노흔 오꾸마는、담배를 끄내여 석냥에 불을 부처문다.
「서울갈이야 누가 하든지」
동섭이 미안한듯이 말을 가로맛차
오꾸마는 담배연기를 눈어부신 듯이 한편으로 지긋이 감으며 동섭을 바라보더니
「인제 모든것이 유선생님 뜻대로 잘못읍니다그려 조예혼가라 진저리를 내시든 오꾸마가 인제 영영 떠나가버렸구요 …」
다.
「그래보…」
「그래요、그래가 엇저요?」
하는 오꾸마는 [illegible] 담배연기를 [illegible] 오꾸마는 [illegible]
하고 인애는 [illegible] 오꾸마는 [illegible]
「무엇 [illegible]」
오꾸마는 [illegible]

南長留任運動
【당진】 [illegible]

書 後

◎泰州煙草耕作組合第十五回通常總會 去一日午前十一時小賣人二百三十人來賓四百名이 參加下에 盛大히 擧行
◎長湍郡郡場農會支所新築落成式 去七月一日 國有林事務所二層에서 盛大히 擧行되고 丸善旅館에서 祝宴이 擧行
◎文武殿氏(蔚山郡守長) 去卅九日自宅에서 喜壽宴을 擧行

消 息

仁川 [illegible] 는 海水浴客을 爲하야 月尾島에 七月十一日부터 八月三十一日까지 臨時出張所를 開設한다고.

蔚山 蔚山郵便局出張所에서는 去七月一日 蔚山邑事務所에서 創始十五年記念式을 擧行.
固城 去六月三十日에 [illegible] 는 [illegible] 되어 [illegible].
[illegible] 郡內 曾天教徒者가 百餘名이 되든바 近日에 와서는 [illegible]

第五回 南朝鮮庭球大會
◇日時 八月二日午前八時(雨天順延)
◇場所 湖南銀行長城支店코ー트
◇申請 一組金一圓也

第五回 南朝鮮庭球大會
◇日時 七月二十六日午前九時
◇場所 長城普通學校コー트
◇主催 東亞日報長城支局
◇後援 長城體育會、中央、朝鮮、東亞三支局

第二回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日時 七月二十六日午前九時
◇場所 松汀庭球俱樂部코ー트
◇申請金 每組에 一圓
◇申請場所 東亞日報社松汀支局
◇主催 甘岩庭球俱樂部
◇後援 東亞日報松汀支局、松汀庭球俱樂部

第一回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日時 七月十二日午前九時
◇場所 楊州郡廳코ー트
◇申請金 每組에 一圓
◇申請期日 七月十一日까지
◇主催 東亞日報社汶山支局
◇後援 汶山庭球俱樂部

第一回 南朝鮮庭球大會
◇日時 七月十二日午前九時부터
◇場所 長城郡湖南銀行코ー트
◇申請金 每組一圓
◇申請場所 林文房具店
◇主催 林文房具店
◇後援 朝鮮、東亞南支局

梨花保育 音樂과童劇의밤
四日 咸興 永生高普講堂
六日 北青 北青劇場
七日 城津 遊聚座
九日 清津 共樂館
十日 會寧 會寧劇場
十一日 龍井 公會堂
主催 梨花保育學校
後援 東亞日報社各支局

ClibPDF - www.fastio.com

地方論壇

撫順同胞傷害事件에對하야

一記者

[illegible] 滿人의 暴行事件이 자조發生하야 一部 世人의 注目을 끌고잇다. 얼마전 奉天에서는 滿人兵士가 [illegible] 又는 亂打하야 [illegible] 五月三十日에는 撫順永安台附近部落에 滿人暴力團의 襲擊으로 因하야 四戶의 [illegible] 十三名의 [illegible] 한 事態라고 아니할수 없다. 今後 [illegible] 이러한 事件이 [illegible] 바라는바이다.

'大平壤'都市計劃 明春實施는確實

◇기초안이 이미 작성되어 今月下旬、府會諮問

【평양】'대평양'건설의 기본이 될 도시계획안은 평남도 당국에서 직접 기수(技手)를 파송하야 조사측량을 [illegible] 공한바잇어 최근 그 기초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엇다 한다. 그리하야 총독부에서 보내어올 도시계획기초안을 자문(諮問)할 부회(府會)를 금월하순경에 개회할터이고 동 부회에서 대체로 [illegible] 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치어 결정안을 작성할터인바 [illegible] 평양에 도시계획안의 실시를 볼것이라 한다.

를 종합할터이라 한다. 더욱이 평양제二인도교 건설안은 이미 三백만원예산으로 그설계까지 [illegible] 바잇으나 다만경비문제로 이때껏 실현을 보지못하엿든것이라 부민들은 이때에 대한 단합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기운이 농후하다고 한다.

第二人道橋問題 意見綜合코저

四日府懇談會開催

평양 도시계획안 실시를 앞두고 제二인도교문제는 평양조선인 시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논의되고 잇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제二인도교 건설촉성운동의 회합까지 수차 잇어 왓다. 이리하야 조선인시가의 주민들은 제二인도교문제에 대하야 비상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잇는터로 평양부 당국은 오는 四일오후二시 부회의실에서 부회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에 대한 의견을 [illegible]

느리신江岸의 이름 (西山高豆江所見)

蠶繭共販制度로 明紬機業前途悲觀

◇특수사정을 고려치안어 高原春蠶共販極閑散

【고원】 함남 명산지 고원(高原)지방은 금춘잠견은 연내에 보기드문 대풍작을 이루엇는데 이것의 시장출회는 극히 지지부진하야 공동판매장은 도리어 한산한 상태에 잇어 세인들이 [illegible] 하고 잇을정도라고 한다. 그원인은 동지방은 양잠지대인만큼 또한 명주(明紬) 기업열이 최근상당히 팽창되어가고 잇으며 결국 농군에서 생산되는 잠견의 대부분이 가사 가가용 제사(製絲)로써 가내수공업을 행하고 잇는 까닭이라고 한다. 이러므로 시 一반 농가에서 이행하고잇는 명주기업을 조장하기 위하야는 원료인 잠견매입에 원활을 도모하여서 그 특수사정을 고려함이 잇어야 한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곳 역시 할행공판제도를 행하여서 그원료견을 대재벌 제사공업가에게 빼앗기게 하고잇다 한다. 그러므로 모처럼 융성하여 가는 농군농가의 가내수공업으로서의 명주기업은 결국 원료견부족으로 인하야 그전도를 저해하게 되여잇는데 당국자는 이중대한 모순을 해결할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橫領理事等 去一日送局

三橋水組事件段落

【양시】 용천 양시(龍川 楊市) 三교수조(三橋水組)횡령사건책임자를 행정처분코지하에 대하야 관계자주임은 물론 一반의 비난이 시회에도 불구하고 고교(高橋)이사등을 행정처분을 한후 퇴직금까지 주고저 평의원회를 열고 책임지정을 의원현지으로하고 퇴직까지 주기로 결의하는 동시에 후임이사까지 결정하야 문제는 一시해결된듯이 보아든바 동안 사법관의 활동으로 고교이사외 二명을 소환 용암포경찰서에 유치하고 엄중취조중이라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그후 소식을 들으면 [illegible] 하야 김재형(金載鳴) 장국신(張國臣)씨등을 소환하야 취조후 지난 一일에 신의주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고 한다.

朔州橋洞金山에 事故가續出

【교동】 삭주교동 금산 수사회사(朔州橋洞金山株式會社) 서부제일번항(西部第一番坑)에서 廿七일오후두시경 천판이 떠러저 작업중인 광부이홍선(李鳳田)(二七)은 두부와 흉부에 중상을 내엇는바 생명에는 관계없으리라고 한다. 또 동부사노왕(東部梁道)에서 금석을 내려만든 지창봉(池昌鳳)(二□)은 홀연히 미끄러지며 부붕을다친바 정찰을입고 인에서는 거금반출뿐의사의 진찰에의하면 뇌막염이 생긴바생명이위험하다고한다.

沙里院發展座談會

【사리원】 사리원(沙里院)기자단에서는 사리원발전을위하야 이래노력을하야옴은 이미 사리원三만시민이 아는바어니와 오는四일오후一시부터는 역시 사리원기자단의주최로 사리원공회당에서 四五十명의 사리원유지가 한자리에 모여서 사리원발전 좌담회를열고 대사리원 건설에대한의견을 각각진술하야 구체적안을세운후 본격적으로 운동을할터이라한다.

崇仁商業에 三千圓寄附

【평양】 평양(平壤)교육계에 기뻐할 소식이 또하나—평양부 채관리(債館里)三四一 나석조(羅錫祚)여사가 지난 六월 十三일 사거할지음 유산 三천여원을 공공사업에 사용키를 발한바 잇어 그의 아우되는 부내 채관리 三四一 나석신(羅錫信)여사는 부내 숭인상업학교(崇仁商業學校)에 형의 유산 三천五백원을 수입전에 기부하여 왓다한다. 동 숭인상업학교는 평양에 잇어 오직 하나인 우리힘으로 이루어진 중등학교로서 아직 재단이 확립되지 못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는터인바 동교 소유지가잇는 안주군 입석면 송산리(安州郡立石面松山里)의 예산강(文山江)부채매립공사(府營埋立工事)의 완료됨을 따라 동교의 재단은 더욱 충실하게 되리라 한다.

벙어리假刑事 中國人巨奪取

【신의주】 벙어리가 가형사노릇을하야 통행인의 돈을 빼앗엇다는 [illegible] 평북 의주군 광평동 의주(義州)郡 [illegible] 장윤무(張允武)(二七)이라는 [illegible] 서·강계·희천가 따라가 잡앗는데 이벙어리는 전에도 종종 절도를 하는것을 벙어리라는 이유로 관대히 처분해 왓엇다고한다.

失期의降雨 廢畓은未免

천수답 四만정보는 절망 高原農家에長嘆息

【고원】 장기한발로 참혹한 현상을 이루고잇든 고원(高原)지방에도 지난二일부터는 제법가는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잇는데 이는 성복후에 약방문격으로 도리혀 一반 농가의 간안(?)마음을 더욱 울하게 만들고 잇을뿐이라고 한다. 동군은 건답이앙(乾畓移秧)과 [illegible] 아직 천수답四、五백정보가 남어잇는데 이는 제아모리 강우량이 흡족하게된다 하드래도 이미 실기되여 패답치안을수없게되엿다고한다. 그러므로 금번의 비는 기앙답(旣秧畓)에만 一적천금의 가치가 잇는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는아직도 보습비정도를 지나지못하고잇어 농가의 가슴만 애를 조이게하고잇다한다.

異變! 七月에 霜降結氷

【함흥】 계속되든한발로인하야 한동안 농촌을 소란하게하든 가물은 기보한바와같이 [illegible] 함남의 괴후는 七월에 들어 서리(霜)가나리고 기온이 영하四도로 급강하야 결빙(結氷)까지 보게 되어 연三년간 냉해의 쓰린 가슴을 알 [illegible]

旱禍의지난足跡 大麥감자四割減收

大體로平年作되기도어려워 十八萬農家에또愁雲

번여나 농형을 또 다시 염려하는 동시에 가슴을 어루만지게 하엿거니와 가물이 지내간뒤에 나타나는 피해의 흔적은 평지대에 공하야 다대하야 어떠지방은 대맥(大麥)은 三할감, 마령서(馬鈴薯)四할감등 대체로 일반 전작물은 다소의 감소를 보게될것이며 지금의 발육상황은 매우 불량하다고 한다. 이제 각지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삼수군(三水郡)은 대맥이 약三할가에 마령서는 二할감수를 예상하고 영흥(永興)은 대맥이 三할가수와 고원(高原)과 문천(文川)은 대체로 발육상황이 매우 우량하고 안변(安邊)은 대두(大豆)가 약 四할가 소맥이 二할五부가수를 예상하고 마령서는 四할가수 홍원(洪原)은 전체로 북청(北靑)과 이원(利原)은 모다 불량하나 그중에도 대맥 마령서 외 피해가 혹심하고 단천(端川)은 대맥의 피해가 제一심하고 그다음이 마령서 대두등의 순서로 되여잇으며 신흥(新興)은 대맥이 四할감 기타 잡곡류도 보다 감수를 예상하는터인데 대체로 금년농형은 평년작이나될는지 적지안케 농가의 우려를 가저오게하는터로 재지 한답에는 또다시 수운(愁雲)이 떠돌게되엿다.

晩時之嘆의慈雨 咸南一帶에沛然

二일새벽부터 저녁까지 十二미리 農村엔歡喜聲充溢

【함흥】 기다린지 이미 오랜 一저천금의 자우— 一일밤부터 검은 구름이 오락가락 하드니 이제 철늦게 二일새벽부터 부슬비가 나리기 시작하야 간간히 끈첫다가는 나리고 나리다가는 끈처서 종일 비실은 구름은 개일듯도 하지 안코 줄줄이 생명수를 뿌려주고 잇는터인데 一반 전작에는 다시 없는 감우가 되려니와 비를 기다리다가못하야 드디어 패답하게된 一만三천여정보의 천수답은 이번 나린 꿀비의 혜택도 힘입지 못하고 벼모대신에 공과 모밀(蕎麥)을 뿌리게 되엇으니 어찌 하늘을 고르다 하리오? 二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린 함흥一대의 강우량은 十二미리나 나리어 목말러 시드러진 전곡에는 겨우 해갈을 되엇고 계속하야 강우중으로 농촌은 한가지로 환희의노래를 부르고 잇다.

南國그리든藝妓 逃亡타被捉

【신의주】 청도 시장로(靑島市場路)三二호 사진업 산구부일(山口度一)(?)은 작년가을 가정불화로 처가 무단히 집을 나간후부터 유곽에 자조 출입하야 영락정(永樂町) 신향루(新香樓)의 예기 『미요즈루』라는 서구초자(西口初子)(二□)와 친근한 사이가 되어 금년 五월 十五일 전차금 二천원을 물지 아니한채 도망하야 조남(兆南) 천진(天津)등지로 전전하다가 서울로가든 도중 一일 저녁 경의선 열차안에서 국경이동반에게 검거되엇다.

師校位置咸興決定으로 元山公職者總蹶起

지사의관료적처사가얄밉다고 問題는去益波瀾重疊

【원산】 원산(元山)에 잇어서 사범학교(師範學校)설치문제는 소화五년부터의 현안으로 맹렬한운동이 계속되여와서 총독부 함남도 당국에서도 후보지로 최적지를 공정하여오든바 금년에는 면서 북조선에 관립사범학교가 설립되게되여 전원산 공직자는 一제히 유치에 맹렬한 운동을 개시하엿을때 함흥(咸興)에서도 역시 관립사범학교 유치운동을 개시함으로 원산에서는 一층 운동에 박차를 가하야 함남도지사도 지난 二월六일 당지공직자 간담회석상에서도 원산에 될가능성을 자신이 말하엿고 또정무총감도 원산에 조건이 완비되여 잇음을 인정하고 총독도 원산이 교육의 최적지라 언명하엿다고 원산의 공직자가 원산에서는 가장 합법적으로 또신사적으로 운동을 계속하여오든바 천만뜻밖에 작一일 발표에 의하면 사범학교위치는 함흥에 결정되고 말어서 이 소식을안 전원산부민은 너무나 의외에 처사에 상당한 여론이 비등하자 부회의원 상공의원 도회의원 卅二명의 공직자가 상공회의소 누상에 급거회합하야 대긴장리에 선후책을 강구하게 되엿는데 동석상에서 지금까지의 운동전말을 보고하고 금번 사범학교위치결정에 대하야 행정관청소재지본위의 관료적 처사를 통론하는등 一부 공직자들은 一반 시민에 대하야 아무 면목이 없어 사임설이 대두하야 부정운동에 一대 파문을 일으켜 의장은 각一각으로 험악화하엿다. 이리하야 다시 二일밤 八시에 재차 속회하기로 약속하고 동十二시에 폐회되엿다.

三重要公職者 辭職願을提出해

市民에게도大衝動惹起

【원산】 전긔와같이 원산의 공직자는 이구동성으로 관청소재지중심의 불공평처사를 비난하는 一방 [illegible] 산장해방을 위하야 이것을기회로 전시민이 협기하야 맛당이 관료주의의 타파할것을 통고하엿다고 한다. 그리고 도회의원이고 상의회두(商議會頭)인 삼야(杉野)씨와 도회의원이요 부회부의장인 [illegible] 회간사장인 신궁(新宮)씨 의원서전(西田)씨등은 그회합 전들사직한다고 선언하고 즉석으로사표를 제출함으로써 一반시민에 一층충동을 주엇다는바 금후에 어떠케 전개될것인가 사태는자못 험악하다고 한다.

公職者全部가 總辭職斷行

부의원卅명 상공의원廿五명 聲明書까지發表해

【원산지국 시국전보】 변동보도한 원산부회의는 二일에 재개되어 그석상에서 부회의원 三十명과 상공회의원 二十五명은 그 책임을 표명키로 다같은 성명서를 발표한후 총사직을 단행하야 문제는 앞으로 더욱 험대할 기세가 보인다.

「師範學校設置는 咸興으로 決定되어 六萬元山府民의 期待에 不副한것은 最初부터 運動에 關與한 우리公職者一同의 不敏이엿으므로 이의 責任을 痛感하고 이에 總辭職한것이다」

商議員金鎔國氏談

[illegible] 함흥으로 이때 결정된것도 [illegible] 도지사는 오늘까지 [illegible]

府議員 岡本氏談

[illegible] 대한 태도로 우리를 대하엿다는것은 우리를 기만한것이다. 원산으로서 전부 실패하는것은 우리들의 일이적은것도 아니고 조건이 나쁜것도 아니다. 오직 행정관청이 없어 항상 이때받는것이다. 우리는 중대한 결의로써 이에 대항하는동시에 一반시민에게 힘모자람을 진사하겟다. 운운

鳳頭火田民 半數以上絶糧

초근목피도 얻을수없어 憂慮되는그들前途

【봉두】 함남화전지대는 연三년이나 조상냉해로 절량호수가 나날이 늘어간다. 지난 二十八일에 화전지대인 봉두리 봉흥리(鳳頭里鳳興里)에 가본즉 때는 마침 석반할때라 감자껍질(馬鈴薯皮)을 발여 가루를 내인데다가 「사라구」라는 풀을 섞거 죽을 끄려 주린창자를 채우려하나 그것조차 넉넉치못한 가정이잇으니 그야말로 이것이 초근목피가아니고 이라— 누룩겨운 광경이엿다. 봉두산동지도구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화전민호수가 一천六十九호중 약四할인 四백二十여호가 절량이라하니 아직 새곡식 날때까지 二개월이나잇는 그대들에게 一일이 여三추라 한다.

없는大豆로 大金을詐取

【신의주】 평북자성군삼풍면운봉동(慈城郡三豊面雲峰洞) 우용희(禹龍熙)(二□)는 五월하순 부내진사정(眞砂町)七 [illegible] 상회에 콩을 보낼터이니 돈을 보내라고 전보를 처서 一천三백七十원을 사취하여 가지고 만주에 도망하엿다가 노만(露滿)국경 흑하성 오운현(黑河省烏雲縣)에서 잡 [illegible]

漢川幼稚園 開園은在邇

【한천】 평남평원군 한천시(平原郡漢川市)의 [illegible] 부친의 유언을받어 [illegible] 되엿는데 [illegible] 개원식을 거행하리라고하며 [illegible] 사는 제二세의아동을 가정적으로 [illegible]

土地二百斗寄附

【한천】 평남평원군 한천시(平原郡漢川市)三八 김일선(金一善)여사(七□)는 지금부터 五十여년전 초년과부로 적빈무의하여 [illegible] 토지二백두락을 [illegible] 부하엿는데 [illegible] 이번 최씨의 미거를 [illegible] 아마지안는다고 한다.

痴情鰥姑劇一幕

【무산】 지난 二十五일밤 간부 간부가 동침타가 다른정부에게 발견되어 난타를 당하야 중상을입은 치정극一막이 무산(茂山)군하에 생겻다. 사실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무산군 삼장면 삼상동(茂山郡三長面三上洞)에 거주하는 강모(姜某)의처 김씨(金氏)(二□)는 그의남편이 [illegible] 생활난으로 작년여름 강도지방으로 품팔이를 갓다가 이에 동내 서채천(石彩天)(?)과 정교관계를 맺어내려오든중 또다시 삼장시내(三長市內)에 거주하는 강희석(姜希錫)(?)과도 추한 관계를 맺어 그야말로 三、四각관계로 내려오든바 지난 二十五일밤 예도 정부의하나인 강희석이와 동침중 이것을 알어채인 서채천이가 동침중의 간부부를 장작으로 무수난타하야 몸이모다 흔도투성이라 한다. 그리하야 생명엔 별이상없고 가해자 서채천도 그의 밉인 二十七일 남촌주재소원에게 붓잡여 목하 취조를 받고잇는 중이라 한다.

面長留任코저 公職者奮起

고금정리에 희생된 孟山智德面에서

【맹산】 평남맹산군 지덕면(孟山郡智德面)에서는 동면장 안영달(安永達)씨를 유임하여 달라고 도지사에게 전보를치고 군수를방문하엿다고한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탐문하면 아무이유도없이 지난二十七일에 동군청에서 면장과회계원이 고급이니 二인간에 누구를 정리하는것이 적당하냐 함에 안면장은 후진을위하야 내가사면하겟소하고 그즉석에서 사면원을 제출하엿다고한다. 이소문을들은 동면 협의원、구장급과 면민들은 면장十년에 관민을위하야 다대한 공적은잇어도 아무허물이 없엇으니 유임하여달라고 금일一일에 동면협의원급 구장一동이 평남상내(上內)지사에게 유임하여 달라는 진정의전보를치고 동면대표 한의원 박홍걱、김서봉(朴鴻格、金瑞鳳)양씨가 동군수 변기정(?)씨를 방문하엿다는데 만일에 면장이 유임이안되면 문제는 중대화될 모양이라고 한다.

自轉車遠乘會

【선천】 선천읍내(宣川邑內) [illegible] 자전거점(自轉車店)에서는 본보선천지국 후원으로 오는 十二일 [illegible] 까지 왕복하는 원승회(遠乘會)를 개최한다는바 다수참가를 희망한다고 한다.

日時 七月十二日 場所 [illegible] 會費 一人五十錢 申込所 宣川邑中央 [illegible] 마감 七月九日까지

未移秧의天水畓 七割以上에達해

安州今年年事悲觀

穀價暴騰으로 細民生活極難

【안주】 한발소동을 곳곳에서 부르짓고 잇는 이때에 안주(安州)지방에 잇어서는 농가에서 작업을 시작한이래 우금 四개월동안에 지난 六월 二十일경에 약三四미리의 강우가 잇은후 비는 [illegible] 고 잇으나 앞으로 더 올라 갈것을 예상하고 팔지 안는 관계가 크다고 하며 농가의 주식물인 북미갑이 매두에 四、五十전씩 앙등하야 一반 농촌은 식료이 나올 [illegible] 한다.

道補助받고도 開校를못해

원인은 부담금이안모여서 焦燥하는平北道當局

【신의주】 도의 보조는 받앗으나 [illegible] 모이지 아니하야 간이학교인가신청을 하지못한 군이十개군이나 잇다는 평안북도 교육계의 우울한 이야기— 평북도에서는 금년도 간이학교十九개소를 설립코저 十九개군에 대하야 각기 보조를 주어 왓는데 지금까지 신청인가된군은 후창(厚昌)창성(昌城)위원(渭原)초산(楚山)자성(慈城)삭주(朔州)선천(宣川)강계(江界) [illegible] 三개군뿐 남아지 十개군은 아직 인가신청을 아니하야 처음계획보다 지연되므로 도학무과에서는 개교시키고저 각군에 독촉하 [illegible] 이같이 개교가 늦음은 농촌경제가 말이 아니되어 지방부담금이 아니 모이는 탓이라 추측된다고 한다.

平壤電車事故 隔日一回平均

【평양】 평양부(平壤府)에서 경영하는 전차의 사고건수는 전부 十四건으로 하로 걸러 한번씩은 사고를 이르킨 셈이라 한다. 그리하여 도 부영에서는 종업원의 부주의를 지제하여 주의를 촉탁이라고 한다.

會合

[illegible]

消息

[illegible]

信通

新安州 少年軍 [illegible]

元山 降雨量은 不過 廿一미리 아직도 五十미리가 不足하다고.

[illegible]

小學生欄

交友의道

應接室

設問은三日間
◇應答은每日繼續◇
每週火·木·土(午후)

應接室 制十番

[illegible]

新家庭 七月號

盛夏의結髮 閔德成

初期女流留學生面面
劉英俊、金樂喜、兪珏卿、朴陽斌、金淳愛、
李淑卿、趙프루덴쓰、崔活蘭、李恩羅、李惠卿、金弼禮、趙信聖、張貴蓮、玄永成、梁邁倫、朱光明、金앨니쓰、崔앨니쓰、尹貞媛

A型、朴英姬 (考案)

B型、閔德成 (考案)

C型、鄭花靜 (考案)

中國에留學한·初代女性 李榮俊

不姙症을如何히하나

朝鮮의黃髮美人 沙雲生

清涼飲料만드는법 金懸寶

女性時論 黃信德

國際情勢 洪翼範

旧態新裝 崔永秀(漫畫入)

全朝鮮女子卓球大會記 曹明煥

新家庭趣味室 (色劇)

女學生欄

女權伸張問題

우리는農村으로가자 好壽敎 白上鳳
建設圓滿家庭 好壽敎 王令鳳
傳染病을豫防하자면 好壽敎 朴興吉
하도기뻐신짝까지잃든그때 朴陽斌
第十五回美展女流作品評 雪蕉生
家庭經濟와家計簿記 李善浩
어름冷藏庫와電氣冷藏庫 XY生
梨花가社會에내놓은일꾼들 金永義

改善되는女性의新道德律 梁在廈

讀者文藝
浦口情抒 成基德
思念小譜 馬鳴
적은厭世 李淑敬
彈琴臺 外一篇 牧溪 洪淵民
哀愁 李彭順
노래하나라 林淵
翻女 金蘭洛
正義 外一篇 金鸞浩
종달세 李湖彭

巫女의神歌 (3) 朴英熙

誌代二十錢 (送料二錢)
京城府光化門通
發行所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改良住宅의一案 朴受景
盛夏衛生二、三 張文卿
輕快한女學生服製法 任貞嬿
美術的速成刺繡 張善禧
西洋女子結髮變遷相

洋裝은누가먼저했나?

初代西洋留學生인最初女醫師 朴에스더 河蘭史
梨花의元老教育者 黃메레
初代啓蒙運動者 尹고라
一時社交界의明星

夏節에適當한兒童間食 金李用

잠자지않는개 童謠 尹石重 童謠 金三葉
잠자리

隨筆
夏日雜感 戊戌生
시골시집사리生活譜 金永愛
시골에돌아와서 崔仁俊

이달文藝
거울 (詩) 一石
에얼리烽火뚝 (譯詩) 張永淑 金尙鎔
눈물 (詩) 尹泰雄

連作小說 破鏡

夏路千里 (紀行) 崔마리아

僧空海의下山 短篇 白鐵

그림없는그림책 徐恒錫

黎明期 (37)

—第二部 都邑篇—

張赫宙 作 鄭玄雄 畫

前回까지의梗槪 장소는 옹진읍이다. 삼미를 떠나온 安鍾는 柳夏永이의 주선으로 이곳 幼稚園에 보모로就職되엇다. 한곳에 일을보게된 金二順이는 뜻밧으로 安鍾와는 舊面이엇다. 그러나 二順이는 퍽히스테리한女子이고 二順의男便 崔山이는 野卑하기짝이업는 사나이다. 園長夏永이나 젊은홀몸으로水産會에 比해서 늙안라돌도 아주고 紳士的態度를 잃지안는 夏永이는 어느여름날그의사랑을 告白한다 安鍾는 夏永이를 존경하나로 夏永의 사랑을받기로한다 그러나 崔山이는 기어히 安鍾의 貞操를 빼앗으려다 그러나 맛참에 사람이잇서 逃亡해버린다.

퇴직 (2)

며칠 지나서 안라가 출근하려고 막 문을 나오려고 할때

「선생님! 선생님 집에 잇서요?」

하며 이순이가 들어왓다.

안색이 변해지며 살기가 뻣다.

언제인가 안라에게 싸우라구 졸르든때를 생각코 경계하는 마음이 들엇오다

「아이구 제게 일부러 들러주셧서!」

안라는 보통때와같이 인사하려 햇다

그리다

「좀 이리와!」

바라보앗다.

「왜? 무슨일이 잇서요?」

안라는 내새 무슨일인가? 하고의아한 얼굴로 이순이를 바라보앗다.

혹시 그일을 발하려는것인가? 안색을 엿보아서는 그러치두 안구.

「아이 참! 숨이막혀!」

이순이는 얼른 말을 아니하엿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안라는 근심스런 실긴이나는 마음으로 물엇다

「이것 바!」

이순이 제먼저 마루로 건일어가며

「아이구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잇서! 숨이 막혀 막죽어야할 일이지 그런세상에 이런일도 어디 잇는지 몰라」

안라는 가슴이 콩키해지어 무어라구해서 말을할것인지 주저하는 것이엇다.

안라는 의아한 눈으로 이순이를 바라볼뿐이엇다.

「아니 이런 일루 또 어디잇습간」

이순이는 화푸리라기 보다 동정을 구하못하는 얼굴로 안라를 보며

이순이는 봉투를 끄집어 내어 보여

「五六백봉안이나 사람을 놀여먹는 그조히 한쪽으로 사람을 내쫏는 법두 잇나!」

「네?……」

안라는 할말이 없엇다.

정말 놀랏다. 이순이를 퇴시킵시키게로구나.

「그원인은?」

그는 모순된 그의 마음을 숨기려구 조히쪽을 끄집어내어 읽긴하엿다.

그러나 무어라구 해야 된단말이냐?

「……」

그는 거오 얼굴을 붉혀 이순이를 바라볼뿐이엇다.

「아니 이런!」

이순이는 잇다라 짓거리어

「유치원이 누구 손으로 된줄입길래 저벌어먹을 자식이 나를… 얼핏부 잘못나오구 아이들이래야 겨오 스물도 안되는것을 내손으로 지금만치 맹그러 두엇는데 그 요은 감기세러 이런 일이 세상에… 아 좀을 마……」

「원장 만나셧세요?」

안라는 겨오 말머리를 잡엇다.

「원장이구 깨붓이구, 그자가만나수어야 한탄말이지! 어제 저녁때 그걸 보내노코는 코끗도 아니보이니 어디 말이나 해보셧나?! 흥! 이놈들 누가 그러케 쉽게 나갈줄이나?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을……」

안라는 이순의 무아한 얼굴을 보매 백히 걱이 나는것이엇다. 이순이와 하지원인은 최산이의 야비한 행동에 잇는것이 분명하다.

하영이가 기여이 —이야기를한상인테 한게로구나.

만야 이순이가 그걸 안다면 어더기가? 모아라구 대드러대일지 누가 안단말이냐.

손에 쥐여잇는 봉투를 수라고 수서하다가 살그머니 이순이 무릎밑에 놋구,

그럼 유치원에가보죠. 원장이 그리로 와도……

시간이 나걸구나 하고 안라는 초소하며 배핫다.

通俗小說에 對하야

韓雪野

通俗小說은 勿論 讀者의 歡心을 爲한 標的으로 하는것이어서 그것을 滿足시키기 爲해서 …

◇ 그作品 을 만히 읽어 …

◇ 事件의 …

◇ 具體的 으로 …

[illegible]

다빈치名畫의修復

海外學藝뉴-스

[비치가(伊太利)發聞盟)最後의 晩餐]을 그린有名한 레오날드·다·빈치의 …

[illegible]

漢詩

林居自詠八首 張鉉參

一、卜居

二、安貧

三、耕田

四、閒事

五、喜雨

六、晴畫

七、觀心

八、觀物

[illegible]

科學

吾바 清涼飮料水

榮養的效果로본

炭酸、果實、乳性의세가지飮料

金民熙

清涼飮料라고하면 …

◇ 長篇代 …

[illegible]

身彌島行 ❶

文·畫 李青汀

갈매기 날라 가는곳 저기는 身彌島(宜川요).

우리배는 당나귀처럼 붕붕거리면서 갈매기를 따라 身彌島를 찾어가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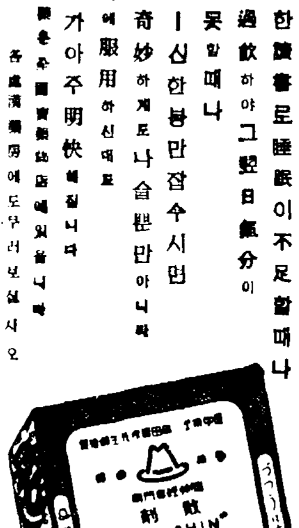
清貧政丞

柳政丞寬은 高麗末朝에 科擧하고 太宗朝에 宰相이되엇으나 廉公코 淸貧하야 東大門밧에 두어間집을 짓되 울타리와 大門도 없엇다. 太宗께서는 宰相의집이 그렁주 잇느나 하시고 繕工監에命令을 나리사 밤사이에 그집울타리를 하여주고 알리지말라 하섯으니 이는柳公이 알면 固辭할까 꺼리신 까닭이다. 柳公은 世宗때 政丞이되엇고나 後代事까지 하엿으며 집에잇는데 누가와서찾으면 거?

「오늘 비가 이러케오는데 우리는 雨傘이라도 잇서나와 雨傘도 없는집에서는 어찌할고」하는 柳政丞의말에 그夫人께서 「宮에도 빈말로 삼신을신고나가 맛엇다.」 어떤때는 손조 호미를 들고 채마밭을 매기도하엿다. 또는 明鑑한탓이 오면 반드시 濁酒한사발을 接人할위에 놓고 사발상사발로 술을 잘따 부어주고 어 술을 두어그릇씩 마시고 그 말뿐이엇다.

이같이 事物에 어둔이로는本來 大臣들하지 못할것이나 特히 柳公은 그廉潔에 百姓을 위하는 心地로 大臣을 하고도 남엇다. 그러하야 柳公이 後進들가르치는데는 熱心이어서 배우는사람이 門에 메엿다 (雲林)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몹시압을때……노-신

골치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신

간간히번두머리를알을때……노-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어노-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면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各處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定價 四包入二十錢 七包入三十錢 十三包入五十錢 二十八包入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東亞日報購讀請求所 昌信商店 電話光一〇六八

阿吾地灰岩洞案內

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阿吾地炭業所灰岩洞物品供給所 植田量光 金珠男

阿吾地灰岩洞 元興商店 主 徐元善

新興旅館 主 金碩煥

阿吾地灰岩洞 東一商店 主 朴春般 / 般昌商店 主 鄭寅初 / 不安食堂 姜允錫 商店 / 大昌成 主 朴英炳 / 山冷麵屋 主 王良國 / 甲上野事務所 主 金石臣 / 無名 鄭尙俊氏

阿吾地醸酒 慶興釀酒所 主 吳達洙

阿吾地灰岩洞 印刷所 泰盛堂印刷所 主 金棟基

阿吾地灰岩洞 時計病院 月星堂時計店支店 主 朴鳳鉉

本社京販 電話光七三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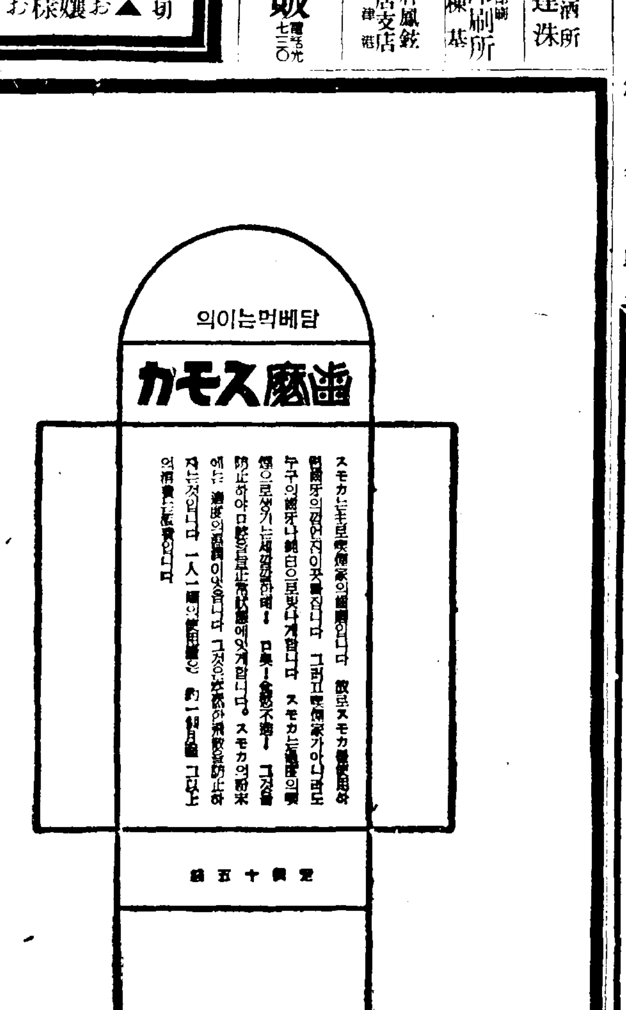
封切 七月二日ヨリ七日迄五日間

▲オペラハツト コ社

▲兒いもうと P.C.L.

▲お嬢様お耳拜借

若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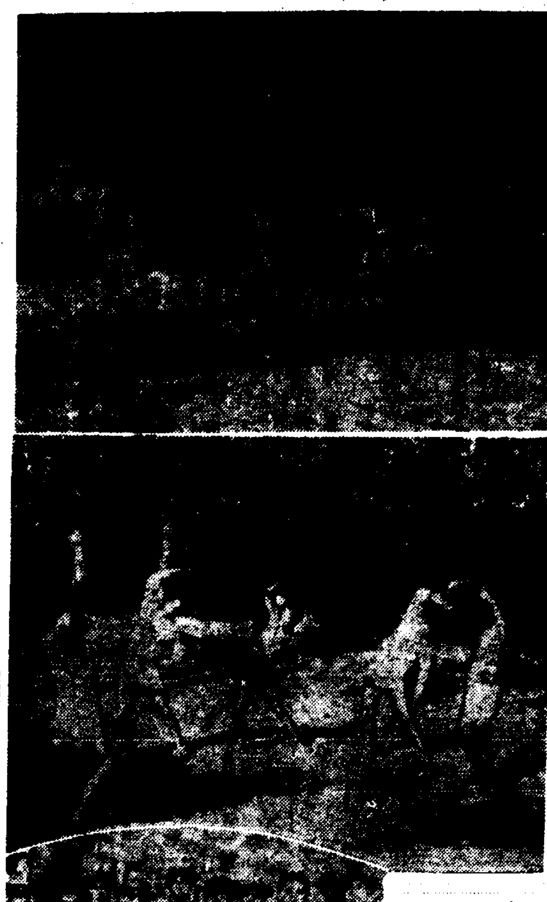


質當典 大塚本店 パコダ公園前停留場南 電話光化門一五八番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話一二五九番

外科 性病科 婦人科 醫學博士 西野入直澄

ClibPDF - www.fastio.com



우리의 生命을걸은 伯林의마라손코스

世界的舞臺에 스포츠朝鮮이 登場한지 十四年, 벗수로 四年 이와 반들로 半世紀되는 이번伯林의 第十一回올림픽大會도 全世界의 [illegible] 여러오려니와 빛날 [illegible] 伯林에잇는 스포츠朝鮮으로서 色다르게 人氣끄을고 잇는가운데 바로 한달못 남기고 臨迫하엿다. 이제 우리가 가장 [illegible]으로 期待를가지고잇게하는 마라손의 選手孫基禎, 南昇龍兩君은 이미 先發하야 [illegible]이 곳伯林에 다어잇기 [illegible]에 가까웁고 [illegible] 五選手가 지금伯林에 거이가잇게 닷는 旅途에잇다. 이제 先着한 南昇龍君으로부터 보낸 [illegible]의 一部와 또 君이 보내어온가지 올림픽뉴스를 이로부터 실리기로한다.

聖戰의코―스를踏査코

◇…南昇龍君着伯後第一信

이코―스가 나의生命을 바처야할코스요, 또우리의 [illegible] 나를통하야 [illegible] 아니 [illegible]하여야 生命을걸고 [illegible]하고 [illegible]하신 [illegible] 아끼지 안코 주시든 [illegible]로구나―이러케 [illegible] 생언이 조아서 우서노지면서, 제절로 [illegible] 命을 다해야할 責任을 [illegible] 어찌 가슴이 뛰지안캣슴니까.

그러나 부지런히 가슴이 두근거리기만하면 무엇합니까. 이기고야말 決心의 압헤는 오직 끝까지 自重, 또身上에對한 [illegible], 그리고 그저 다리가 부러지도록 [illegible]까지 싸우려는 鬪志뿐입니다. 이기겟다는 鬪志뿐입니다.

그동안 세우럿다고 하시겟지만 [illegible] 저의 決心은 지고잇는 [illegible] 三, 四日[illegible]이오 올림픽村에서 大會 마지막까지 [illegible]

(…)

伯林外[illegible]에서 南昇龍 六月十九日

그럼은 伯林, 꿈에도 [illegible] 올림픽 [illegible] 지루한 [illegible] 旅行도 [illegible] 가시넛, 그저 [illegible] 근거리는 가슴뿐이니 이는 六月十七日아침 伯林[illegible] 中央驛에다 [illegible] 저의所感의 一片입니다. [illegible] 거는 이날午前八時 二十分입니다 [illegible] 本人會에서 내엇는데 午後一時半부터 約한時間으로 [illegible]

우리가 [illegible] 伯林에 [illegible] 우선 [illegible] 쉬엇으면하엿으나 어디 [illegible] 뜻이 잘되겟습니까 [illegible] 그대로 되어야지요 [illegible] 마라손 코스 [illegible] 가슴이 두 [illegible] 어떻지 [illegible]

우리五選手한께 올림픽本隊 伯林安着

【伯林二日同盟特派員發】日本올림픽代表本隊는 三日午前十時五十八分着 列車로 伯林에 到着하였다 [illegible] 下白五十二名 伯林에 [illegible] 이中에는 [illegible] 選手, 孫基禎, 南昇龍 [illegible] 選手에 [illegible] 氏가 잇다.

日本크루準決勝에

日本蒼六艇[illegible] 【[illegible]二日同盟】 [illegible] 準決勝 [illegible] 第一回戰 第四組에 出場한 日本[illegible] 代表 [illegible] 二日午後四時半보 [illegible] 一艇身을 [illegible] 準決勝에 [illegible]되엿다.

日本레카타大敗

【[illegible]二日同盟特派員發】로얄 [illegible] 레가타 [illegible] 日本代表 [illegible] 六艇身의差로 日本敗退하엿다. 1 추리히大學(瑞西)七分九秒▲

都市野球豫選開幕

京城6 清津2

大每主催의 都市野球 [illegible]

이 [illegible]하여지서 이름 [illegible] 伯林에 [illegible] 作의스포츠 [illegible]

◇아프카니스탄은올림픽에 [illegible] 二十九日發 中央아세아의 [illegible] 가잇는 나라 아프카니스탄에서는 [illegible]

第三回 老童登上 十一日로延期

高麗陸上競技協會 主催의 第三回老童[illegible]競技大會는 今四日 午後二時부터 龍山鐵道競技場에서 열려던바 여러가지 事情으로 不得已오는 十一日의 十[illegible]로 延期되엿으며 따라서 參加申請도 七月九日까지 [illegible] 同協會로 하라고 한다.

三百餘名參加 專賣局競技會

第三回 專賣局各部對抗 運動大會는 今明兩日間 京城[illegible] 運動場, [illegible]에서 專賣局[illegible] 一千[illegible]의 [illegible]이 [illegible]

崇專庭球隊 湖南에遠征

【平壤】 崇實專門庭球部에서는 이번夏休를 利用하야 湖南에遠征할터이라는데 그日程과 陣容은 다음과갓다.

◇陣容 監督 金浩植 △코치 [illegible] △마네저 金[illegible] △選手 [illegible], 金[illegible], 郭[illegible], [illegible], 朴[illegible], 申明善, 金大吉

◇日程 出發七月十日午後十一時十五分 △開城 [illegible] △全州 [illegible] 光州 [illegible] 木浦 十七日

選手大會 第一日은 三日午後四時四十人分 京城球場에서 全京城對全清津戰을 佐田[illegible], 濱田, 津島, 白石[illegible]의 四氏審判, 清津先攻으로 開始하야 六A對二로 全京城[illegible] (開戰六時三十五分)

投捕(清) 田中―宇野 (京) 李東[illegible], 前田―小笠原

清	0 0 0 0 0 0 0 0 1 ― 2
京	0 0 0 2 2 0 0 0 A ― 6

目을 [illegible] 出場하야 [illegible]이 [illegible]

◇選拔陣四八名 [illegible] 올림픽主催國獨逸에서 出場할 選手는 男子四百一名 女子四十七名 計四百四十八名의 [illegible]

◇英國拳鬪陣 全英國아마추어拳鬪協會 ABA는 六月三日 [illegible] 第一回 올림픽拳 [illegible]

乘勝北征의延專庭球 宣川서도快勝

◇大將權君의孤軍奮鬪로

【宣川】 宣川庭球研究會에서는 延專軟式庭球團을 마지하야 지난二日午後三時부터 [illegible] 中學校 코―트에서 宣川軍과 對戰을 [illegible] 第一라운드에서 延專은 [illegible] 尹錫元 [illegible] 孤立奮戰하야 [illegible]

【延專】 【宣川】

【第一라운드】
× (金光[illegible] 朴正學) 0―4 (朴俊福 朴白賢) ○
× (鄭元[illegible] 崔[illegible]) 2―4 ([illegible] 金永[illegible]) ○
○ (尹錫元 權錫仁) 4―2 (金[illegible] 吉[illegible]) ×
× (高[illegible] 韓[illegible]) 1―4 (康[illegible] 崔[illegible]) ○
× (高[illegible] 金[illegible]) 4―6 (金泰[illegible] 文春三) ○

【第二라운드】
○ (尹錫元 權錫仁) 4―1 (朴俊福 朴白賢) ×

【第三라운드】
○ (尹錫元 權錫仁) 4―0 (崔[illegible] 金永[illegible]) ×

하다. 【[illegible]】 [illegible] 好勝[illegible] 하고 大人氣를 [illegible] 인통레이로 始終하야 同六時 [illegible] 한바 戰績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次回올림픽招致運動

伊太利가다시出馬

結局올림픽컵미리波蘭難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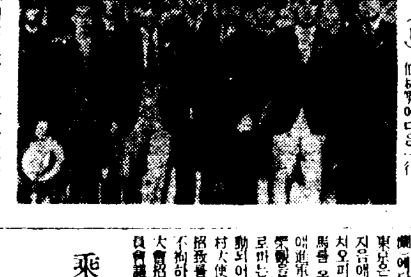
東京과아울러四巴戰

【伯林二日發同盟】 第十二回올림픽大會 東京招致는 헬싱키(芬蘭)에다가 런던(英國)이 뛰어들어 東京은 [illegible] 苦戰에 빠저잇는이 지음에 또다시 로마(伊太利)가 애초에 [illegible] 오피아 征服의 餘威를 [illegible] 馬를 올림픽大會 招致戰의 陣頭에 [illegible] 不許하는 狀態에 이르럿다 [illegible] 日本의 [illegible] 動이 [illegible] 村大使에게 [illegible] 招致를 約束하엿다고 傳하엿음에 [illegible] 하고 [illegible] 大會招致에 [illegible] 올림픽 [illegible] 委員會 [illegible] 레와르드 博士에게 로마 [illegible]

의立候補를 [illegible] 日本에게 [illegible] 레와르드 博士의 [illegible] 一九四〇年 第十二回 올림픽大會 招致候補로서는 [illegible] 부터 東京, 헬싱키의 兩地가 [illegible] 二十九日開催의 [illegible] 올림픽 大會開催地決定은 [illegible] 의 波瀾을 [illegible]

軟式庭球聯盟이 「赤M」球를公認

朝鮮軟式 庭球聯盟에서는 軟式庭球로서 朝鮮과 因緣이 [illegible] 東京三田土고무 製造株式會社製球 「赤M」을 公認하기로되엿으며 이朝鮮의 總代理店을 京城本町 三中井 運動具部에 [illegible] 三日 公文을 各道 [illegible] 及他人에게 發表하엿다 한다.



聖戰場伯林에다은 마라손陣의三포즈
(上) 올림픽코―스實地練習
(中) 두번재가 孫, 넷재가 南兩君
(下) 伯林驛에다은 四選手와 코취

軟式野球戰은 二日午後五時五分 세브란스 構內運動場에서 呂運亨氏始球, [illegible]氏球審, 세브란스先攻으로 열린바 二十對七로 세브란스軍大勝하엿다.

世醫20 中央日報7

南朝鮮籠球大會

統營K팀이優勝

【統營】 統營籠球俱樂部主催 第二回 南朝鮮籠球大會를 豫定과같이 지난二十八日 統營[illegible] 코―트에서 數千觀衆의 拍手裡에 開催한바 參加팀은 晉州, 三千浦, 馬山, 統營等七個팀으로서 [illegible] 長霖때라 [illegible] 야 運動場은 泥海로變하엿으나 [illegible] 選手들의 最後까지 싸우는 場面은 더욱人氣를 集中하야 大盛況으로 最後優勝은 統營K팀에 돌아가고 大會는 無事히 終幕되엿다 한다.

全北籠野球大會 【北鎭】

北鎭青年會主催의 全北鎭野球大會는 지난 一日에 北鎭 公普校그라운드에서 처음으로 擧行되엇는바 西洋人, 朝鮮人, 日本人의 三團體가 參加하엿는데 一回戰으로 西洋人對日本人戰은 接戰에 西洋人敗하고 朝鮮人軍의 決勝에 또한 十二對十으로 朝鮮人軍이 惜敗하엿다.

新記錄欄

◆投槍에大記錄 와르사우市에 열린 同市對某市의 都市對抗競技에서 로카이스키(波)가 投槍에 七十三米二七의大記錄을지어엿다.

◆滑空機의新記錄 獨逸의 旅客機의 그라이더가 飛行距離八十二킬로라는 最長世界記錄을 지엇다.

今日의運動

▼野球 第六回中等校大會第一日 午後一時入場式後 徽文―中央 大東―善隣戰 延專球場
都市對抗朝鮮豫選準決勝大田鐵道―本貫(一時半)全大邱―全京城(四時半) 京城球場
▼專賣局大會第一日午後一時京中球場(蹴球, 庭球, 弓道, 劍道는同時刻 西大門町二丁目專賣局官舍運動場)

麥酒原料大麥

北朝鮮試栽順調

全南慶南도栽培決定

麥酒原料의 朝鮮內自給은 먼저 [illegible] 後에서 實現하야 目下北朝鮮에서 試栽를 進行하고잇는데 原料大麥의 自給에 對하야서는 兩麥酒會社의 要望도 잇어 今年度부터 本格的으로 麥酒用大麥의 栽培를 行하기로하야 [illegible] 朝鮮麥酒, 昭和麥酒의 兩社, 總督府山本技師及 農務課 [illegible] 의 各道技術者 [illegible] 會合하야 協議한 結果 今回에는 全南, 及全南에서 栽培하기로 決定하엿다 [illegible] 肥料, 種子, 栽培管理等兩麥酒會社에서 [illegible] 하기로되엿다.

日滿緬羊協會

朝鮮에資金調達

昭和八年東京[illegible]의 一로 [illegible] 日滿緬羊協會 [illegible] 活動資金百萬圓을 [illegible] 日本羊毛工業會에서 寄附하게되고 [illegible] 萬圓을 受取하엿는데 [illegible] 十四萬圓은 卽時拂入하엿으며 [illegible]

端川汝海津

눈치魚豊獲

約十年前에 처음나타나서 一帶는俄然活氣充滿

【端川】 端川郡 汝海津 바다에서는 去二十七, 八兩日間 「눈치」라고하는 고기가 多數잡히어 [illegible] 魚村은 俄然活氣를 띠고 漁撈에 [illegible] 約十年前에 [illegible] 바다에서 二個月間이나 [illegible] 그價格이 [illegible] 今般에도 [illegible] 現모양이고 兩日間 [illegible]

電動力使用講習

七日부터三日間

京城商議에서 六月二十三日부터 [illegible] 三日間 電動力使用[illegible] 開催하는데 [illegible] 名에 [illegible] 先着百名에 [illegible]

浦項等五三倍增資

【[illegible]】 浦項[illegible]에서는 以前부터 增資計劃을 [illegible] 實行의 [illegible] 사이에 大體의 解가 [illegible] 增資하기로되엇다 [illegible] 一, 增資額 [illegible] 一, 增資方法 [illegible] 一, 增資目的 [illegible] 一, 第一回拂込 四分之一

每日午後八時부터 京城商議에서 第二回講習會를 開催하기로 되엇다.

朝銀의預金 三億圓突破

貸出도四億圓

朝鮮銀行의 上期業績은 各支店에서의 報告가 整理되지안코 [illegible] 未計數는 不明이나 預金은 三億圓을 突破하야 [illegible] 末에 比하면 五十萬圓가량의 增加이다 [illegible] 貸出도 四億 [illegible]

米倉在庫

一日現在 在庫高는 九十九萬千九百七十八石으로 [illegible]

各地春繭共販

▼孟山 平南孟山에서는 同郡農會의 主催로 左記日割과 場所에서 春蠶生繭共同販賣를 開始하엿다고 한다.

販賣場所 生繭販賣日割
孟山面本[illegible] 自七月一日
[illegible] 至七月十四日
[illegible] 自六月二十九日
[illegible] 至七月十二日
元南面 [illegible] 自七月一日
郡農會乾繭場 至七月十四日

販賣價格 (一貫當)

普通 改良上簇
特等 三, 三七錢 三, 六七錢
一等 三, 〇九 三, 二六
二等 二, 八一 三等 二, 五
三 四等 二, 二五 [illegible]
, 九七 乾繭 一, 五五 [illegible]
一, 六〇 ▲ 一, 五[illegible]
▲ 一, 一[illegible]

釜山 一八九, 一三六石

副業品時勢

(朝副協調査)

▼藥草 [illegible]

專賣局[illegible] 紀念式 [illegible] 同日午前十時부터 專賣局 [illegible]

地方産業雜信

▲開城 지난一日은 專賣局[illegible]

京都朝鮮人織物業者

年收入額三十萬圓突破

製織業과技術이모두優良

【京都】 京都에來往하는 朝鮮同胞의 總數四萬八千名에 一割以上은 西陣織物業者 [illegible] 寄附하고잇는데 그技術이 優秀하야 收入도相當히 만하서 다른百五十名假量이나되며 一人月平均 [illegible] 年五十圓以上 收入이 [illegible]

(右同胞의 生活[illegible] 그런데 京都西陣[illegible] 自營 또는 被傭되어잇는 人數는 約 [illegible] 收入總額은 約三十萬圓 以上되리라한다. 어로보아 [illegible] 努力을加하면 앞으로 [illegible] 하리라한다.)

▼家畜飼料 ▼肥料 ▼農業用具 ▼農藥藥品 ▼金網

各移出港의在米

馬山	一四, 三三九
麗水	三, 一七八

▲釜山 ▲馬山 ▲麗水 ▲木浦 ▲群山 ▲江景 ▲仁川 ▲鎭南浦 ▲元山 (正租, 玄米, 白米, 日本內地米, 計)

鑛業權動靜

鑛業權變更

登錄名義人表示變更

鑛業權表示變更

鑛業權表示更正

共同鑛業代表者改定

共同鑛業權者脫退

鑛業代理人屆